

# 북미정상 합의... 4강 외교시계 빨라진다

## 안보 협력 강화 총력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성사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 주변 4강의 외교 시계는 숨가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 북미 회담은 한반도 휴전선을 중심으로 형성된 북·중·러 대 한·미·일 전통적 냉전 구도가 새롭게 재편되는 출발점이기도 하지 만, 주변국들에게 기회와 동시에 급박한 변화와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어서다.

주변국들은 각국의 이해득실을 따지며 한반도 정세에 밀리지 않도록 외교 안보 협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일, 오늘 북미회담  
공유 비핵화 공조 논의  
중·러, 유엔해진  
북미관계 견제  
남북미, 남북미중회담  
성사 가능성

먼저 한·미·일 3국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3일 오후 나란히 방한한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 설명을 위해 방한하는 폼페이오 장관은 14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비핵화 공조 방안을 협의한다. 또 같은날청와대를



합의문 서명 마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내 카펠라 호텔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은 동영상 캡처한 것이다.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강경화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 고노 다로 외무상은 14일 오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재팬 패싱'으로 자존심이 상한 아베 신조 총리와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를 북한 비핵화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로 보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따라서 연내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북일 관계 정상화와 경제협력 등을 통해 정면 돌파할 것으로 예상

된다.

북한의 후견인을 자처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한미일 등 서방세력이 가까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막후에서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중국을 공식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한반도 해법에 대해 논의, 양국 간 밀월관계를 과시한 바 있다.

또 그간 북한에 물질 지원뿐만 아니라 인적지원, 기술지원 등을 거의 독점적으로 제공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중국은 이번 북미 간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초조함을

드러냈다.

중전 선언 가능성에 대해 자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김 위원장에게 고위급들이 해의 순방 시 이용하는 전용기와 경호를 제공해주는 등 특급 대우를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 정상화와 미국이 약속한 경제적 지원이 이뤄질 경우 북미가 급속하게 친밀해지는 것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음이 급해진 러시아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1~23일 문재인 대통령을

러시아를 국빈 자격으로 초청,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극동지역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러시아는 북한 핵 폐기와 남북관계 정상화 이후 한반도와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철도네트워크를 통해 영향력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6자 회담 체제의 당사국이었던 중·러가 한반도의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 서둘러 한반도 문제 당사국들과 대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뉴시스



## 싱가포르 언론들 북미회담 대서특필

스트레이트 타임즈 등 지면 1면에 사진·기사 게재

6.12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날인 13일 싱가포르 유력 언론들은 북미 정상회담을 대서특필했다. 다양한 민중이 사는 싱가포르엔 영어, 중국어와 타밀어(인도 타밀족 언어)로 발행되는 신문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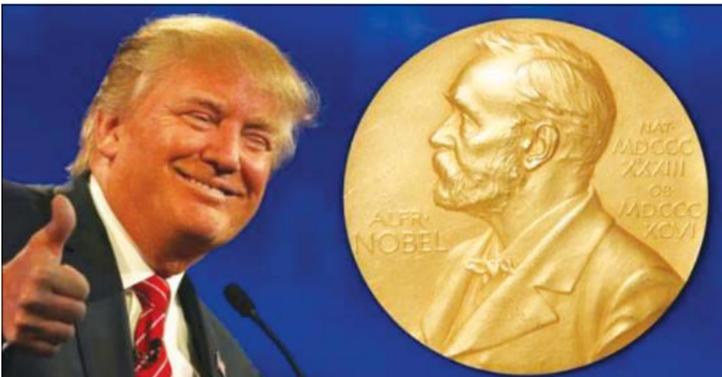
현지 유력 신문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13일자 신문1면에 "평화로 가는 긴 여정의 첫발(Fist step on long road to peace)"라고 적으며 두 정상이 악수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북미 정상회담관련 기사를 13면(총25면)에 할애해 정날의 열기가 식지 않았음을 나타냈다.

북미 정상회담을 생중계한 현지 방송사인 채널뉴스 아시아(Channel News Asia)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와 12일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계속 방영했다.

싱가포르 중국어 신문 리엔허 자오빠오(聯合新報)는 북미 정상회담만 아니라 이번 싱가포르 행에 동행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현송월 북한 산지연관현악단 단장에 대한 기사도 실었다.

또 다른 중국어 신문 신민 데일리뉴스(新明日報)와 타밀어 신문 타밀 말라수(Tamil Murasu) 등도 1면부터 자세하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사진과 기사를 게재했다.

/뉴시스



## "트주라!"... 시민들 트럼프 노벨상 지지 봇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지난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에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북미관계 정상화는 곧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양 정상이 의미있는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시민들도 있다.

본인이 무대의 주인공이 돼 관심 받기를 극

도로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상 노벨 평화상을 줘서라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 같은 바람이 '트럼프주라'로 불리기도 한다. 프로야구단 롯데 자이언츠 팬들의 문화인 '아주라(파울볼은 아이에게 줘라)'에 빗댄 표현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네티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그를 치켜세우는 댓글을

달고 있다.

한 네티즌은 한글로 "지지자들의 노벨 연호에 함박 웃음이 터진다"며 "노벨상은 트럼프에게, 우리에게엔 평화를!!"이라는 문구를 남겼다.

또 다른 한국 네티즌 역시 "누가 호스트가 되느냐는 덜 중요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만 해준다면 한반도는 축제로 확 바뀔 것"이라며 "까지 노벨상은 트럼프에게 줘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실리를 가져올 수 있다면 명예는 충분히 미국 대통령에게 양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